

가스사고예방실천결의대회도 겸해



지난 1월 19일 박기준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부발전과 회원단합의 공이 인정된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백성해)는 지난 1월 19일 중앙회 박기준 회장과 부산지부 권평준 지부장, 울산지부 이동환 지부장을 비롯하여 지부 임원진 및 협력업체 대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사고예방실천결의대회 및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백성해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여러분 야가 매우 어렵고 힘든 한해였지만은 대구경북지부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온 한해”라며 “경제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정성을 모아 시공에 임하고 다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협회는 시공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어떠한 법령의 개정 움직임에도 과감히 맞서 싸워 나갈것이다”며 “보일러설비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기술교육을 협회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보고 및 2006년도 예산을 심의통과시켰으며, 신임지회장 임명장 수여와 지부발전과 회원단합의 공이 인정된 회원에게는 중앙회장 및 지부장표창이 수여되었으며, 대구지부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협력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밖에도 가스사고예방실천결의대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 설비인들이 사고예방의 실천의지를 다졌다.